

# 김진표 국회의장 만나 현안 건의 농업근로자거주여건개선추진

## 황인홍 무주군수, 국제 태권도 사관학교 설립 예산 요청

황인홍 군수가 국회 내년도 정부 예산안 처리 시한인 다음달 2일을 앞두고 막판 국제 태권도사관학교 설립 예산 확보를 위한 활동을 벌였다.

황인홍 군수는 지난 28일 오후 국회의장실을 방문하고 김진표 의장을 만난 자리에서 "국제 태권도 사관학교 설립에 탄력을 얻게 될 사전타당성 용역비 예산 3억 원을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

황 군수는 이날 자리에서 "전 세계 태권도 보급과 국가경쟁력 확보, 침체된 태권도가 부흥되기 위해서는 글로벌 태권도 인재 양성 전문 교육 기관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번 국회 심의단계에서 처리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어 "국제 태권도 사관학교 설립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재정부 공약에 반영됐다. 사전 타당성 용역비가 국회 심의 과정에서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면서 "국회 차원에서 적극 배려



황인홍 군수는 지난 28일 김진표 의장을 만난 자리에서 "국제 태권도 사관학교 설립에 탄력을 얻게 될 사전타당성 용역비 예산 3억 원을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해 달라"고 강조했다.

앞서 황 군수는 국제 태권도 사관학

교 예산 반영과 관련 최근 국회 등을 수차례 방문하고 문화체육관광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석전문 위원 등 핵심 인사를 접촉해 설립에 필요한 국비를 건의하는 등 총력을 쏟고 있다.

당초 지난 5월 정부가 3억 원을 기획재정부에 제출했으나 최종 정부안에는 미반영 됐다.

이에 무주군의 노력에 힘입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임위가 국제 태권도 사관학교 설립을 위한 사전 타당성 용역비 3억 원을 증액,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문화체육관광부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불씨를 살렸다.

지난 17일부터 본격 가동한 예산안 등조정소위원회는 예산 증액과 감액에 최종 심사하고 여·야 협의를 통해 다음달 2일 정부 예산안을 처리한 후 국회 회회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최종 확정된다. /무주=전문선 기자

## 진안군, 농업인근로자기숙사 실시설계용역 진행 상황 보고회 가져

진안군은 29일 농업기술센터에서 외국인 근로자들의 원활한 도입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농업인근로자 기숙사 실시설계용역 진행 상황 보고회를 개최했다.

군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업 근로자 기숙사 건립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돼 2022~2023년까지 2개년에 걸쳐 사업비 15억원(국비 50%, 도비 15%, 군비 35%)을 들여 진안읍 군산리 241번지(607㎡) 일대에 지상 2층, 연면적 578.12㎡규모로 약 40~50명 수용 가능한 기숙사시설을 건축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다.

회의에는 설계 용역사를 비롯한 전기, 소방 건축 등의 감독공무원과 농민회 진안조공, 외국인계절근로자 사업주 등이 참석해 농업 근로자 기숙사 건립 지원사업 추진 방향과 일정 등을 공유했다.

회의는 먼저 용역사의 설계 진행 사항에 대해 설명하고, 관계 공무원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운영 경험이 있는 진안조공대표 및 사업주들이 의견을 나누는 순서로 진행됐다.

군은 회의를 통해 수렴된 의견을 참고하고 타 지역 우수사례 탐방과 숙소 입주대상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의견을 종합해 올해 12월 중간보고를 거쳐 2023년 1월 말까지 실시설계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해 같은해 10월경 기숙사를 완공한다는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농촌고령화 등으로 인해 노동력이 절대 필요한 상황에서 외국인계절근로자 도입은 필수 과제"라며 "기숙사가 완공되면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거주 여건 개선으로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안정적인 고용인력 확보로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진안군은 외국인계절근로자 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으로 2022년 73농가 153명의 일손 부족 해결했으며 2023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신규 수요 조사에서 농가들이 350명의 근로자를 희망하는 것으로 조사되는 등 외국인계절 근로자에 대한 농가들의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진안=우태만 기자

### 지역 소식통

#### 진안군 손종엽씨 전북 삼락농정 대상 선정



제3회 전라북도 삼락농정 대상 삼락농정 대상 제값받는 농업전문에 걸맞은 농업농촌 대표 손종엽씨가 수상자로 최종 선정됐다.

전라북도 삼락농정대상은 삼락농정을 기반으로 농생명산업 선도와 농업·농촌의 가치 제고에 공헌한 이들을 발굴해 농업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높이기 위해 추진하는 시책이다.

수상은 보람찾는 농민(김제시 최승원), 제값받는 농업(진안군 손종엽), 사막찾는 농촌(완주군 귀농귀촌협의회) 등 3개 부문이다.

진안로컬푸드 영농조합대표 손종엽씨는 친환경농업을 활성화하고 판로를 개척·확보하여 농산물의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했으며, 소득증대를 위한 로컬푸드 직매장의 성공적인 운영에 기여한 공적을 높게 인정받았다. /진안=우태만 기자

## 전춘성 진안군수, 댐상류 주민지원사업 지원비 인상 등 요청

전춘성 진안군수가 현안업무 해결을 위한 건립을 이어가고 있다.

군에 따르면 전 군수는 29일 안전환경국장 건설교통과장 등과 회의를 방문해 김진표 국회의장을 만나 용담댐으로 인한 진안군의 개발 제한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관련 문제 해결을 위해 힘을 보태줄 것을 요청했다.

특히 용담댐 건설로 인한 수몰로 인해 인구감소 및 금강수계법에 의한 수변구역 지정 등으로 행위 제한지역으로 묶여 있어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해 강조하며 주요 사항으로 △수자원 공사의 용담댐 인근 지역 소규모 친환경 주거지 조성 등 정주여건 개선대책



마련 △용담댐 효율적 수질보전과 지역주민 생활 환경 개선을 위한 수계기금 지원사업 확대 등을 건의했다.

전춘성 진안군수는 "용담댐이 더 이상 진안군의 발전을 막는 장애물이 아니라 진안군의 성공사대를 힘치게 열어 나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각종 정책 사업을 추진을 위한 기반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 진안군, 금강수계관리기금 종합평가 '1위' 쾌거

진안군이 금강수계관리기금 성과평가에서 종합평가 1위를 차지하는 쾌거를 거뒀다.

금강수계관리기금 성과평가는 금강유역환경청에서 매년 기금사업에 대한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환류하여 기금운용의 투명성 및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실시하고 있다.

2021 회계연도 성과평가는 기금 지원액 10억원 이상의 12개 관리청을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관리청별 주민지원, 환경기초시설설치, 환경기초시설운영, 상수원관리지역관리, 비점오염저감사업 등 5개 사업에 대해 실시했다.

이번 평가에서 진안군은 관리청별 주민지원사업 1위, 비점오염저감사업 1위, 상수원관리지역관리 사업 2위에

선정돼 종합평가 1위를 차지했다.

진안군은 관리청별주민지원사업 운영과정에서 주민들의 이해를 돕고 실효성 있는 사업추진을 위해 20년간 추진된 주민지원사업을 분석해 마을별 맞춤형 컨설팅을 진행하는 등 집행률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지속적인 언론홍보를 통해 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한 부분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비점오염저감사업 부문에서 사업추진(예산 집행률 100%) 및 관리 능력과 주기적인 지도점검 및 목표달성 등 사업 전반에서 우수한 운영을 인정받았다.

이번 종합평가 1위로 진안군은 기관 표창과 포상금 5백만원을 받게 된다. /진안=우태만 기자

## "지역경기 부양효과 뚜렷... 지역화폐 예산 유지해야"

### 송재기 무주군의원, 5분 발언서

무주군의회 송재기 산업건설위원회장이 무주사랑상품권의 지역경기 부양효과가 뚜렷한데도 관련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운다치 않다고 지역화폐 예산을 부활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재기 위원장은 29일 열린 제206회 무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지역화폐 정부 예산 삭감에 따른 대응방안 마련 5분 발언을 통해 "무주사랑상품권이 무주군 경제에 불쏘시개 역할을 했는데 지역화폐 삭감



송재기 위원장은 "고물가에 급리인상까지 겹쳐 군민의 생활은 더 힘들어지고 있다. 그런데 정부는 지역화폐에

재정을 투입하기보다 긴급한 소모나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것이 우선순위에 따라 예산을 삭감했다고 한다"고 말하며 대안책으로서 지역 내 골목상권을 지키고 소상공인에게 이익이 돌아가게 했던 지역화폐 관련 예산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송재기 위원장은 "지역상권을 보호하고 지역자금이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라도 무주군은 정부의 지역화폐 국비 전액 삭감에 따른 빠른 대응을 해야 한다"며 5분 발언을 마쳤다. /무주=전문선 기자

## "장애인 의무고용 준수해야"

### 문은영 무주군의원

무주군의회 제206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문은영 위원장이 무주군 공무원의 장애인 의무고용 미준수로 매년 부담금을 내는 점을 지적하고 장애인 직원 고용에 적극 나서 것을 주문했다.

문은영 의원은 최근 자치행정과 행정사무감사에서 "무주군이 정원의 3.6%(인 22명)의 장애인 직원을 고용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고용인원이 15명 뿐이다. 그래서 무주군은 작년 7500만원의 장애인 고용촉진 관련 부담금을 부과 받았다"며 장애인 고용에 무주군이 소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무주군은 장애인 직원 고용이 미진한 사유에 대해 채용요건을 갖춘 사람들이 무주군으로 오려고 하지 않는다며 공채로 해결이 안 되는 점을 고려해 임기제 공무원 채용을 진행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제 문은영 의원은 "무주군 등 특인구의 10%가 장애인이다. 이들 중 무주군의 직원으로 근무할 수 있는 장애인이 있을 것"이라며 장애인 고용을 확대 추진할 것을 강조했다.

그는 또한 "무주군 장학재단 기금 조성액의 대부분이 무주군 출연금으로 채워져 있다. 출연금보다 기부금으로 운영하는 것이 목적이 더 부합할 것"이라며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를 장려하고 연계해 운영하는 것도 검토해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민선 7기 4년 동안 공무원 인사아동이 거의 없었던 특수직렬이나 기술직을 제외한 공무원 직원도 자기능력 개발과 근무환경 쇄신을 위해 인사이동을 실시할 것을 주문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 "구천동 개선, 행정대집행까지 염두해 뒤야"

### 황인동 무주군의원, 행감서

무주군의회 제206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황인동 위원장은 무주군의 얼굴이라 할 수 있는 무주구천동 관광특구의 대대적 개선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황인동 의원은 최근 행정복지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불법 설치된 평상식 구천동 계곡 주변을 쳐우고 있다. 행정대집행까지 염두에 두고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황인동 의원은 "평상과 불법시설물이 난립하는 게 무주의 얼굴인 구천동의 모습이다. 수년 전 무주군이 평상을 철거하려고 행정대집행을 계획했는데 지역주민들이 스스로 합의안을 만들어 와서 취소한 적이 있다. 그



런데 개선되는 모습은 잠깐이었고 지금은 당시보다 더 혼란스럽다. 이 때문에 무주의 대외관광지라고 하는 무주구천동의 모습이 훼손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무주구천동이 그 명성을 되찾으려면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예산만 투입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며 지역주민들이 구천동을 살아야 자신들도 살 수 있다는 인식을 해야 한다"며 "주민들도 이런 모습들이 결코 무주구천동 관광특구 명성을 유지하는데 좋지 않다고 생각한다. 개선이 되지 않는다면

행정조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인동 의원은 또한 "구천동 계곡 초입에서 운영되고 있는 캠핑장이 유료주차장 표시를 하고 있는데 정작 무주군에는 유료주차장 신고가 들어온 적이 없다. 이는 주차장법과 맞지 않으며 토지 소유주도 전라북도도로 되어 있다 사용목적에 맞지 않게 유료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것은 행정적 조치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질의에 이혜심 행정복지국장장은 "구천동 명성을 살리기 위해 주민 스스로 인식을 개선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있다. 행정과 주민이 대립이 관공에 대해 관심을 갖고 변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유료주차장 문제는 면밀히 들여다보겠다고 답변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 "청년층 경제활동 보장 정책 필요"

### 오광석 무주군의원

무주군의회 제206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오광석 위원장이 무주군의 지속적인 인구감소를 우려하고 청년인구를 막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광석 의원은 최근 기획실 행정사무감사에서 "무주군은 소멸위험 지역에 매년 포함되고 있다. 주민들은 무주군이 출산장려나 귀농귀촌인 유인하고 인구유출 방지 등 나름의 노력을 해왔다고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구유출이 계속되는 것은 큰 문제"라며 인구대책에 성과가 나오지 않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무주군의 인구대책이 현실감 있게 진행되고 있는지 돌아봐야 한다.



크게 보면 무주군의 인구정책이 91개 사업 530억 원 규모인데 이렇게 막대한 재원을 투입하는데도 출생대비 사망률이 5~6배에 달한다. 특히 실

천면에서는 87명이 출어는 등 인구가 급감하고 있다"며 인구정책을 면밀히 분석해 선택과 집중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오광석 의원은 청년계층의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보장할 정책들이 필요하고 미래세대팀을 강화하는 등 적극적인 청년대책을 만들라고 강조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 무주군, 예비성인(고3) 대상 건강체험장 운영

무주군이 예비성인(고3)을 대상으로 건강체험장을 운영하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수능시험 준비로 인한 스트레스와 운동부족으로 몸과 마음이 지쳐있는 고3 학생들에게 건강생활습관을 유도

해 활력을 주자는 취지다.

무주고등학교와 안성고등학교 비롯해 4개 각 고등학교별로 부스가 마련되며, 학생 수가 적은 경우 전교생의 참여가 가능하고 운영은 12월 6일까지다.

부스에서는 건강기초조사 및 건강상

담이 가능하고 체험활동으로 고3 학생들의 건강상태를 점검한다. 영양을 비롯한 질주, 금연, 신체활동, 심뇌혈관 질환 정신건강 상담 등 분야별 전문가가 투입돼 전문적인 1:1 상담과 체험도 가능하다.

예비성인들은 관심 있는 분야의 체험부스를 선택해 집중적인 맞춤형 서비스를 받게 된다. /무주=전문선 기자